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제 38 - 45 호
2021년 11월 21일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아 주신 곡식과 과일은 어려운 이웃에 전달합니다.
- 성서일기 범위가 시편을 마치고 25일(목)부터 누가복음으로 바뀝니다.
- 어린이학교 학년말여행이 22일(월)-24일(수) 춘천으로, 멋쟁이학교 6학년 졸업여행이 21일(일)-24일(수) 부산과 경주지역으로 다녀옵니다.
- 조장희(이재신)집사 아버님 장례식이 18일(목)에 있었습니다.
- 다음 주일(28일)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김영화 권사 (추수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때에

추수감사주일이라 하면 칠면조와 첫 수확물이 떠오릅니다. 영화로 접할 수 있는 화면이지만 의외로 미국 사회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로 지낸다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직장에서는 연휴기간으로 지정하여 쉬기도 하며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1620년 즈음 영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봅니다. 메이플라워 호에 탄 처음 정착민들은 농업이나 어업등 식량에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고 식량문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다 인디언의 도움으로 옥수수 농사를 성공하였고 그것을 기념하며 함께 식사를 하고 예배드렸던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추수감사주일과 유사한 기념일은 초막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수장절, 추수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초막절은 9월 마지막주에서 10월 첫주 사이에 드려지는데 반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마지막주에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기간이 되면 미국의 음식 소비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즈음 하여 블랙 프라이 데이라는 이름의 가장 큰 규모의 세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 한정이었지만 온라인 쇼핑의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고 한국에도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은 가장 극심한 교통체증이 생기는 기간입니다. 또한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칠면조를 해동하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조리방법을 사용하다가 불이 나 쉬고있던 소방수들을 강제 출근시키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물건도 많이 팔리니 많이 쌓아놓고 그러다보니 강도, 절도사건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점점 흐려지고 다른 모습들만이 남아버렸습니다. 형식만 남고 그 본래의 내용은 잊어버린 것입니

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절기는 물건이 많아지고 식탁이 풍성해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싸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처음 메이플라워호에 타고 왔었던 사람들은 굶어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밀과 보리 농사는 망하였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경작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끼니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에 원주민들을 초대하여 예배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양식이 부족한 이들은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하기도 했지만 없는 중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초막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세월 중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들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의 풍성한 수확물 중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위한 날들의 처음 의미는 감사를 기억하고 나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풍족해지는 생활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에 둘러쌓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태만이 남아 기념은 하지만 원래의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어려움을 겪고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 해 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공동체를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은혜를 주셨으며 또한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값을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일상의 분주함으로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서로가 표현하여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주간의 말씀

“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
< 시편 107편 1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143편

제목 :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84 300 397 363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절~6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7절~12절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2. 내용의 의미(Why)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깊이 갈망합시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에게 평탄한 길입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자.
- ②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자.
- ③ 내 뜻과 내 필요를 간구하기 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자.

은혜

손경민 작사,작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데살로니가전서 5 : 16-18
590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3 : 16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301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시편 107 : 1-3, 10-16 설교자
성가대 **축일의 숨씨,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 은혜 감사** 사랑방
설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정태일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59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55(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현숙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의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 감사드려라. 오늘의 말씀은 시편의 결론부분인 마지막 권에서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107편의 서론 부분<1-3>은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 절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107편의 주제는 “주님께 감사드려라”입니다. 그런데, 시107편 서론의 주제는 시107편의 결론이므로,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시편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형편중에서 신앙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107편의 가운데 부분<4-32>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8,15,21,31> 하는 문장이 네 문단을 나누며 후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네 가지 감사의 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구원, 포로생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그리고 바다의 풍랑에서의 구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현대인의 불신앙과 교만은 현대를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세대로 만들었습니다.<딤후3:1-5>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세대에 살지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십시오.<시119:71>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받은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대하32:25>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지난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은 연령별 끼리 활동하는 '또래끼리 우리끼리' 기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재미있는 학교생활이지만 '또래끼리 우리끼리' 기간에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7살 돌고래반은 젓가락질 대회, 꾸러기학교 선생님이셨던 박현주 선생님 댁 방문, 구리 플레이카에 가서 놀기를 했습니다.

5살 코끼리반은 유부초밥 만들어서 먹기, 키즈카페에서 놀기, 남양주 시립박물관과 곤충박물관 관람하기, 동화 '꼬마자동차 덜렁이'에 나오는 네 자동차(덜렁이, 부릉이, 찡찡이, 잉잉이)를 만들고 역할극을 했습니다.

보고 싶은 분을 만나러가고, 용기를 내어 도전을 하고, 근사한 곳에 가서 신나게 놀고, 오랜 시간 함께 차를 타고, 낯선 곳에 가보고,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정성들여 함께 만들고, 연극을 하고,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추억을 쌓아가는 것은 참 소중한 행복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니 티격태격 자주 다투지만 또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러는 사이 서로를 더 알게 되고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법도 알아가게 되지요.

어느새 11월도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남은 2학기 동안 우리 꾸러기들이 서로 더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기를 응원해주세요!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따스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뒤 오른 기온에 어린이들이 유독 밖에서 놀기 좋은 한 주였습니다. 아침에 입고 온 두터운 잠바는 어느새 교실 안을 지키고 있고, 집에 갈 시간엔 부피가 꽤 나가는 잠바를 가방에 넣어서 터질듯한 가방을 메고 돌아가는 뒷 모습도 많았습니다. 날씨 때문이었는지 여유롭게 지낸 한 주였습니다.

또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월요일 주제탐험시간의 주제도 '감사'였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다. 특히 이번에는 모둠별로 찬양을 고르고, 연습하고, 앞에서 부르며 감사 찬양잔치를 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에 자주 부르던 찬양들이었지만 어린이들의 일기에는 아침부터 너무 떨리는 날이었다..라는 귀여운 느낌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끊임없이 감사하며 자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의 감사찬양잔치 영상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주는 한 해를 정리하는 학년말여행이 있습니다. 벌써..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남지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 주세요.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월요일에는 장신대에서 독일어를 가르치시는 권영숙교수님(독일어)과 그 외 2분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울리안, 엘라 선생님의 발표시간에 있어 통역을 해주시고, 그 밖에도 몇 가지 강연을 준비해오셨습니다. 멋쟁이들도 집중해서 독일에 대한 여러가지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안에 비춰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과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종강을 향해 가면서, 가을을 타면서, 점점 멋쟁이들의 마음은 싱송송해가나 봅니다. 종강발표회 준비를 위한 대본위원회는 그 역할을 다했고, 앞으로는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 많은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멋진 추억으로 남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목요일은 수능이 있었습니다. 6학년 중에서는 김의인 멋쟁이만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치루었던 수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함께 계획 중인 6학년 졸업여행도 다함께 재미있는 여행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한 학기,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자율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체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앞을 향한 걸음을 용감하게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깊은 관계의 교류 속에서 서로와 더 가까워지는 멋쟁이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백신 접종으로 가정에 머무는 멋쟁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주님께 감사

유치부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것 같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불교 신자라지만 실은 미신을 믿는 어머니의 반대로 잠시 떠났다가 기독교 학교인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내 인생 2막이 열렸다. 예고에 입학하면서 묻혀만 있던 씨앗이 싹이 나고 비록 큰 나무는 아니지만 마당 한 귀퉁이에라도 서 있을 수 있는 작은 나무가 된 것 같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기도의 응답으로 예고에, 대학에 합격시켜 주심에 감격하여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했다. 비록 건강상의 이유로 전공을 바꿨지만 그것이 오히려 음악 활동의 영역을 넓힌 것이 되었다.

동창들처럼 유명한 연주자도 아니고 교수가 된 것도 아니지만 음악을 시작하면서 즐겁게 많은 일을 했다. 성가대도 하고 곡 중 솔로도 하고 지휘도 하면서 교회의 많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찬양과 지휘는 나의 신앙생활이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느날 갑자기 강렬하게 예고에 가고 싶었고, 성악 레슨을 한번도 못 받았는데 기적처럼 합격한 것, 부모님의 지원도 없이 혼자 힘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한 것, 고등학교 졸업 후에야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지만 부족하나마 예배 반주를 할 수 있게 된 것, 결혼과 남편 뒷바라지와 두 아이를 낳고 기른 것, 그리고 내게 다른 재능들도 주셔서 그것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감사하다. 남편의 병으로 몹시도 힘들었을 때 사랑방공동체에 몸담게 된 것도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군가가 내 지나온 삶, 특히 예고 합격을 얘기해 오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라고 당당히 말한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 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시편 146:2)이 시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남은 삶을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시편 28:7)

디아코니아사랑방 이근자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마가복음 9장 33-37절

인도 : 최기찬 전도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아프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압둘 바리 오마르 탈레반 정부 보건부 부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약 300만 명의 어린이가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이 가운데 100만 명은 영양실조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아프간에서 2천400만 명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연말까지 320만 명의 5세 미만 영유아가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오두막공동체>
 - 1) 생태자립마을 만들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 2)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더 많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 3) 연해주와 북한 선교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추수감사절을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도록
 - 2)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 (조장희집사 부친상)

<생활공동체 소식>

지난 한 주간은 날이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기온의 변화는 일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듯 합니다. 아침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안개가 끼는 날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장신대 권영숙 교수를 비롯하여 2분의 손님이 멋쟁이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공동체에 방문 중인 울리안, 엘라 선생님의 발표 통역과 해외에 다녀온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지하수 청소를 위해서 전문 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지하수 아래 쌓인 침전물을 압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킴이를 지켰습니다. 사랑방의 식구들이 대면으로 많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청소하며 의자를 놓았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돌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